

“생명의 소중한함을 느꼈다”

군산 흥남동, 반려식물 키우기 만족도 78% 긍정적... 특화사업으로 확대 계획

군산시 흥남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진숙자, 최정희)가 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지난 1일부터 실시한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135세대에게 반려식물(공나물 키우기)을 제공한 결과 우울감 및 외로움 해소 등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반려식물을 한 달 동안 키운 홀몸 어르신 108명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78%가 우울감 해소에 된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재참여 의사도 69%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높은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요구되는 반려동물과 달리 식물은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고 공기정화,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협의체 위원들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또한, 반려식물 키우기 만족도 설문 조사를 위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함께하는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 생활지원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반려식물 키우기에 참여한 김모 씨는 “어릴 때 키워보고 30년 만에 다시

키워보니 재미가 있었고, 자란 공나물 김치, 반려식물을 끓여 먹었다”고 말했으며, 박모 씨는 “처음에는 귀찮았으나 공이 싹 트는 것을 보니 생명의 소중한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최정희 위원장은 “반려식물 키우기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식물 키우기 우울증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만큼 흥남동 특화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예술의전당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이쁜 만큼 고고!(보고 듣고 즐기고)’ 4기 뮤지컬, 5기 가족뮤지컬 감상교육 수강생을 오는 30일과 10월 1일부터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보고 듣고 즐기고

군산예술의전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4~5기 수강생 모집

군산시 예술의전당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이쁜 만큼 고고!(보고 듣고 즐기고)’ 4기 뮤지컬, 5기 가족뮤지컬 감상교육 수강생을 오는 30일과 10월 1일부터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기에 뮤지컬의 이해, 뮤지컬 따라하기, 뮤지컬 포스터 만들기, 5기에 뮤지컬 넘버 배우기, 명장면 재연해보기, 무대소품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수업에는 뮤지컬 관람 기회 제공 및 백스테이지 투어도 진행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가족극(4기), 국악(2기), 연극(3기), 뮤지컬(4

기), 가족뮤지컬(5기)의 수업으로 구성해 추진 중이다. 관내 초등생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접수방법은 군산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뮤지컬 장르에 대한 이해와 포스터, 대본, 소품 제작까지 자기주도형 수업진행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강생과 교사 모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학습장 소독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 회현면,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

군산시의 주거 취약계층에 실시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은 회현면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독거노인세대(80세)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낙후된 거주지에서 각종 생활 쓰레기 방치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사례관리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대상자 주거지를 방문해 청소 지원 등 1차로 진행했으며, 군산형 긴급복지 이웃돕기성금 등의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집수리(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및 천정수리 등)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작업에는 회현면 이웃주민들의 집수리 봉사 및 잡자극 제공 등 대상자를 위한 도움에 적극 참여했다. 앞으로도 대상자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돌봄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가 취약한 독거노인 세대를 발굴,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 관광객 유혹

익산시, 역사·문화자원·첨단기술 접목 관광객 유치 집중

익산시가 역사·문화자원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27일 익산시는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쇼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아트쇼는 미륵사지 야외광장에서 추석 연휴와 평일·주말 야간시간을 이용해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과 전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전라북도콘텐츠통합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행사는 백제 무왕의 일대기와 미륵사 창건 설화를 프로젝트 맵핑, 드론을 이용해 관람객들에게 미륵사지의 장엄함을 선사하고 있다.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드론쇼는 20대의 드론을 이용해 현장 복원이 어려운 목탑을 가상 복원해 1400년전 삼국시대 최대탑 미륵사의 3탑



익산시가 역사·문화자원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동탑·목탑·서탑)을 한번에 구현했다. 또한 미륵사 창건설화에 나오는 미륵불과 서탑 출토 사리장엄 등이 구현되면서 세계유산 미륵사지의 경이로움을 선명하고 있다. 이번 쇼는 오는 10월 2일까지 1일 2회 진행된다. 미륵사지 석탑과 일원에서 메인 미디어아트 쇼 ‘소원의 석재’, ‘연지의 기억’ 등 3개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뉴시스

군산대 LINC+사업단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 경제포럼 시리즈 개최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김영철) 산하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센터장 강영숙)는 군산시 사회적경제 혁신가들과 함께 군산 사회적경제 포럼 시리즈를 개최했다. 사회적 경제 포럼은 “군산,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다”에서 “군산,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다”까지 이르는 대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포럼은 학계, 전문기관, 관련 단체, 청년대표기관 지자체와 시의회가 함께 참석하여 시리즈로 진행된다.

학계에서는 군산시 소재 대학 중 군산대학교(LINC+사업단 사회경제연구센터)와 군장대(사회적경제학과), 호원대(윤진주 교수, 차준열 교수)가 참여하고, 관련 단체로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최당현 대표), 군산 사회적기업협의회(황미경 회장), 군산 협동조합협의회(김춘학 회장)가 참여한다. 전문기관으로는 청년플랫폼(이태욱 센터장),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유욱 센터장),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이준호 사무국장), 청년대표기관으로



는 협동조합이토(고동우 대표), 꽃잎다청년공예협동조합(박미선 대표), 시의회(서용안 의원), 지자체에서는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계에서 참여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